韓國心理學會誌 : 發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1996. Vol.9, No.2, 68-78.

한국청소년의 정체감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박 아 청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발달경향을 분석한 것으로 조사대상은 서울을 비롯한 4개 대도시의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 및 대학의 1,2학년의 남여학생 4,262명이었다. 조사도구는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1966)를 사용되었으며, 정체감 전체득점의 경향과 아울러 8가지 하위척도(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정체감 유예 및 정체감 혼미)에 따른 발달경향이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변화와 아울러 정체감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고등학교 1,2학년의 시기에 유의하게 정체감이 증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생은 전반적으로 미숙한 측면을 보이고 있었으나 고등학생이 되면서 부터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척도득점의 현저한 증가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자아정체감(ego-identity)이란 용어는 처음으로 사용한 Erikson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나 그가 주창하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개인의 영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불변성이고, 또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conscious sense of individual identity)"을 뜻하며,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해서 갖는 "연속성과 단일성에 사로잡히는 주관적인 느낌"(p.168)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체감의 개념을 단순한 이론적 구성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학적인 주관적 의식경험을 중요시하여야 하고 자아개념의 통합성, 안정감, 명확성 및 그 관련된 감정들을 자아정체감으로 볼 수 있다(박아청,1995). 자기자신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갈등 즉 온갖 감정들이 일기 시작하는 청소년 또는 청년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들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또는 청년들의 자아정체감을 연구한 논문들 가운데서 자아정체감의 발달경향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논문은 그리 많지 못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다른 변인(예컨대, 자존감이라든가 불안감과 같은 변인들)들과의 관련에 대한 조사연구들이다. 자아정체감의 하부영역 또는 하위지위에 관한 발달경향에 대한 연구로는 서봉연(1975, 1979)이 한국청소년과 서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의 발달경향을 살펴 본 연구가 처음인

것 같다. 그는 그의 연구들을 통해서 한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14~15세 시기에 정체감 득점이 12~13세 시기보다 떨어 졌다가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들을 통해서 한국 청소년들의 정체감 발달경향의 특징을 지적하였다.

그 후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박아청(1984)은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을 Marcia식의 정체감 지위를 분석하여 조사하여 문화적인 차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바가 있다. 그는 정체감 수준에서 한국대학생들이 일본대학생들보다 수준이 의의있게 높게 나타난 결과를 연구자는 입시제도와 관련하여 고찰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수많은 자아정체감에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청소년 또는 청년들의 정체감 발달경향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대부분이 정체감 그 자체의 발달경향을 연구하였다기보다는 정체감과 관련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정체감의 전체득점은 물론 하위영역 또는 하위척도에 대한 발달경향에 대해서는 보고된 것이 뚜렷하게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연구방법상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점은 이들의 연구들의 거의가 연구대상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지역도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박아청,1994).

그러므로 연구대상을 지역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선정하고, 연령범위를 보다 넓혀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체감의 각 하위척도별로 발달경향을 분석할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상을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라고 불리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청년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체감 하위척도별로 발달경향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발달에 있어서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선행연구들(박아청,1990; 송설희,1994)에 근거하여 성별간의 변화를 보기보다는 연령간의 발달경향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방 법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구,서울,부산,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 대학교 1,2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집절차는 4개 도시(대구 1,053명, 서울 1,174명, 부산 1,202명, 광주 1,028명)에서 각 도시마다 중학교과 고등학교는 학급을 5개씩을, 대학생은 5개 대학의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조사에 응한 전체대상은 4,657명이었으나 질문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하다고 판단된 195명을 제외한 4,262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집단별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제시한 것이 표 1이다. 조사는 중등학교는 쉬는 시간, 대학생들은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시기간은 1995년 6월, 7월 및 9월과 10월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표 1. 집단별 조사대상자

	중1, 2년		고등1, 2년		대학1, 2년		전 체
남	345	349	345	353	374	320	2,086
여	398	350	322	352	398	356	2,176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체감 검사들을 4가지 유형(지위분류형,구성요인형 및 발달단계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대표적인 검사들의 문항들(전체 235개 문항)을 기본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제작한 '한국형 정체감척도'(박아청,1996)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척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8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별

eigenvalue와 alpha값은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각 하위척도별 고유치

하위척도(요인)	고유치	변량	Cum Pct
주체성	16.79	24.7	24.7
자기수용성	3.37	5.0	29.7
미래확신성	2.95	4.4	34.0
목표지향성	2.11	3.1	37.1
주도성	2.03	3.0	40.1
친밀성	1.87	2.8	42.9
정체감유예	1.96	2.4	45.3
정체감혼미	1.36	2.0	47.3

표 3. 각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

하 위 척 도	α 계수
주체성(10문항중 8문항선택)	.8520
자기수용성(12문항중 8문항선택)	.8652
미래확신성(8문항)	.8526
목표지향성(10문항중 8문항선택)	.8477
주도성(8문항)	.8106
친밀성(8문항)	.7964
정체감유예(8문항)	.7418
정체감혼미(4문항)	.4738
전 체	.9525

그리고 검사득점에 대한 해석을 간단히 설명하면 앞서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을 그 자체가 복잡한 자아의식으로 자기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고 고양시켜 나가는 자아의 자질로 보고 정체감 검사의 점수가 높은 자가 정체감이 강한 사람으로 보고자 하였다. 즉, 정체감 점수가 높은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과 같은 동기,흥미,가치 등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자기를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자각하며, 자기 일관성 내지는 전체감(feeling of wholeness)을 갖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아정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통합성(integrity of self)을 이룩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자아통합성이란 타인으로부터의 분리와 자기의 통일을 함께 의미한다. 그러므로 서봉연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강한 정체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그 개인으로서는 그러한 특성들을 조화롭게 통합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다"(1988, p.105)고 본 것이다..

본 검사의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5단계 평정으로 택일하게 하였으며, 부정문으로 된 질문에 대한 반응은 거꾸로 환산한 후 채점하였다. 8개 하위척도 가운데 '정체감유예'와 '혼미'는 낮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도록 채점을 반대로 하였다. 그 이유는 정체감 유예와 정체감 혼미는 자아정체감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위척도별로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문항1개씩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체성
내용①능력감 즉,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
②자신의 연속성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
문항: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2. 자기수용성
내용①있는그대로의 능력과 재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
②자신감을 갖고 자신에 대한 신뢰의 정도
문항:우리 집안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3. 미래확신성
내용①자신의 장래의 직업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는 정도
②시간적 경과에 대한 희망의 정도
문항: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고 있다.

4. 목표지향성
내용①능력감 즉,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
②자신의 연속성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
문항:나는 꾸준히 한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한다.

5. 주도성
내용①자신 주변의일 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실행하려고하는가?
②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의 정도
문항: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턱대고 따르는 편이다.

6. 친밀성
내용①타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갖고 있으며, 주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의 정도
②집단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노출정도
문항: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마음이 불안하다.

7. 정체감 유예
내용①자신의 사고와 행동에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고,어릴적 학습한 것에 대한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
문항:나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적이 없다.

8. 정체감의 혼미
내용①정체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과 주변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 없다.
②자신의 연속성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
문항:나는 가치관이라든가 신념이란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결 과

본 결과는 발달수준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척도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1원변량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발달수준별 차이가 유의할 경우에는 사후개별비교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득점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8가지 하위척도별로 분석을 하였다.

정체감 전체득점의 분석

정체감 척도의 전체득점의 발달수준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이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4. 전체득점의 발달수준별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 1	743	205.84	32.47	1.21
중 2	699	217.84	38.09	1.48
고 1	667	241.08	38.67	1.56
고 2	705	238.30	41.05	1.58
대 1	772	244.16	41.22	1.55
대 2	676	231.09	34.67	1.43
전 체	4262	229.34	40.34	.1.64

표 5. 정체감 전체득점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df	SS	MS	F	P
집단간	5	13334.54	2356.10	57.12	.00
집단내	4257	178619.39	46.93		
전 체	4262	191953.93			

표 5에서 보듯이 정체감의 발달수준별 차이는 F=57.12,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발달수준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전체득점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발달수준별 사후개별비교

평균	집단	중 1	중 2	고 2	대 2	고 1	대 1
205.84	중 1						
217.85	중 2	*					
231.09	대 2	*	*				
238.31	고 2	*	*	*			
241.08	고 1	*	*	*			
244.16	대 1	*	*	*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발달수준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과 유의하게 차이를 보여주었다. 중학생들은 정체감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에 비해 고등학교 1년생들이 2학년생 시기의 정체감 득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들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각 하위척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체성'의 분석

주체성의 발달수준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이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 표 8과 같다.

표 7. 주체성의 발달수준별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 1	743	32.43	6.59	.24
중 2	699	34.46	7.34	.28
고 1	667	37.38	6.76	.27
고 2	705	35.61	7.40	.28
대 1	772	36.99	7.27	.27
대 2	676	35.80	5.93	.24
전 체	4262	35.38	7.12	.11

표 8. 주체성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df	SS	MS	F	P
집단간	5	11285.5	2257.10	47.03	.00
집단내	4257	190119.89	47.98		
전 체	4262	201405.43			

표 8에서 보듯이 주체성의 발달수준별 차이는 F=47.03,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발달수준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주체성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발달수준별 사후개별비교

평균	집단	중1	중2	고2	대2	대1	고1
32.43	중 1						
34.46	중 2	*					
35.61	고 2	*					
35.80	대 2	*	*				
36.99	대 1	*	*	*			
37.38	고 1	*	*	*	*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발달수준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 제일 낮았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가장 높았다. 즉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중2에서 대학교 2학년간의 비교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 주체성의 발달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보다, 고1학년 보다 주체성에서 낮게 나타났다..

'자기수용성'의 분석

자기수용성의 발달수준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0과 같다. 이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보듯이 자기수용성의 발달수준별 차이는 F=74.54,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발달수준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자기수용성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0. 자기수용성의 발달수준별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 1	743	36.41	9.04	.34
중 2	699	40.33	9.93	.38
고 1	667	43.43	9.45	.38
고 2	705	43.42	10.04	.39
대 1	772	44.47	8.17	.31
대 2	676	41.69	7.41	.30
전 체	4262	35.38	7.12	.11

표 11. 자기수용성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df	SS	MS	F	P
집단간	5	30698.24	6149.64	74.54	.00
집단내	4257	326336.43	82.36		
전 체	4262	357034.67			

표 12. 발달수준별 사후개별비교

평균	집단	중1	중2	대2	고2	고1	대1
36.41	중 1						
40.33	중 2	*					
41.69	대 2	*					
43.42	고 2	*	*	*			
43.43	고 1	*	*				
44.47	대 1	*	*	*			

자기수용성에서도 전반적으로 발달수준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 제일 낮았으며 대학교 1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1학년생들은 앞서 본 주체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수용성에서도 발달수준이 낮음을 보여 준다.

'미래확신성'의 분석

미래확신성의 발달수준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3과 같다. 이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보듯이 미래확신성의 발달수준별 차이는 F=62.02,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발달수준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자기수용성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3. 미래확신성의 발달수준별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 1	743	24.85	7.05	.26
중 2	699	26.39	7.10	.27
고 1	667	30.36	6.43	.25
고 2	705	29.15	6.88	.26
대 1	772	29.04	6.94	.26
대 2	676	27.99	5.37	.22
전 체	4262	27.88	6.94	.11

표 14. 미래확신성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df	SS	MS	F	P
집단간	5	13898.87	2779.77	62.02	.00
집단내	4257	177561.89	44.81		
전 체	4262	191460.76			

표 15. 발달수준별 사후개별비교

평균	집단	중1	중2	대2	대1	고2	고1
24.85	중 1						
26.39	중 2	*					
27.92	대 2	*	*				
29.03	대 1	*	*				
29.15	고 2	*	*				
30.36	고 1	*	*	*	*		

미래확신성에서도 전반적으로 발달수준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 제일 낮았으며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들은 역시 미래확신성에서도 발달수준이 낮음을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의의있는 발달수준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다. 특히, 고1 년생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목표지향성'의 분석

목표지향성의 발달수준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6과 같다. 이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 표 17과 같다.

표 17에서 보듯이 목표지향성의 발달수준별 차이는 F=138.77,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발달수준에 따라 목표지향성

표 16. 목표지향성의 발달수준별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 1	743	25.85	6.84	.25
중 2	699	26.14	7.84	.30
고 1	667	32.39	7.29	.29
고 2	705	32.73	7.69	.29
대 1	772	32.71	8.36	.31
대 2	676	32.13	6.37	.26
전 체	4262	30.22	8.07	.12

표 17. 목표지향성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df	SS	MS	F	P
집단간	5	38537.39	7707.47	138.77	.00
집단내	4257	220047.74	55.53		
전 체	4262	258585.13			

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발달수준별 사후개별비교

평균	집단	중1	중2	대2	고1	대1	고2
25.85	중 1						
26.14	중 2						
32.13	대 2	*	*				
32.39	고 1	*	*				
32.71	대 1	*	*				
32.73	고 2	*	*				

목표지향성에서도 전반적으로 발달수준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발달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가장 높은 발달을 보여주고 있다.

'주도성'의 분석

주도성의 발달수준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9와 같다. 이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 표 20과 같다.

표 20에서 보듯이 주도성의 발달수준별 차이는 F=30.06,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발달수준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주도

표 19. 주도성의 발달수준별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 1	743	23.58	6.00	.22
중 2	699	23.97	6.30	.24
고 1	667	26.03	6.06	.24
고 2	705	26.14	6.69	.25
대 1	772	26.81	6.41	.24
대 2	676	24.78	5.19	.21
전 체	4262	25.21	6.26	.09

표 20. 주도성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df	SS	MS	F	P
집단간	5	5858.96	1171.79	30.06	.00
집단내	4257	149928.66	37.84		
전 체	4262	155787.62			

성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발달수준별 사후개별비교

평균	집단	중1	중2	대2	고2	고1	대1
23.58	중 1						
23.97	중 2						
24.78	대 2	*					
26.03	고 1	*	*	*			
26.14	고 2	*	*	*			
26.81	대 1	*	*	*			

주도성은 다른 하부척도의 득점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주도성에서도 전반적으로 발달수준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 제일 낮았으며 대학교 1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밀성'의 분석

친밀성의 발달수준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2와 같다. 이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 표 23과 같다.

표 23에서 보듯이 친밀성의 발달수준별 차이는 F=27.75,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표 22. 친밀성의 발달수준별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 1	743	36.41	9.04	.34
중 2	699	40.33	9.93	.38
고 1	667	43.43	9.45	.38
고 2	705	43.42	10.04	.39
대 1	772	44.47	8.17	.31
대 2	676	41.69	7.41	.30
전 체	4262	35.38	7.12	.11

표 23. 친밀성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df	SS	MS	F	P
집단간	5	6038.82	1207.76	27.75	.00
집단내	4257	172379.84	43.50		
전 체	4262	178418.66			

이가 나타나, 발달수준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친밀성은 다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발달수준별 사후개별비교

평균	집단	중1	중2	대2	고2	고1	대1
22.82	중 1						
23.19	중 2						
24.27	대 2	*					
25.30	고 2	*	*				
25.73	고 1	*	*	*			
25.95	대 1	*	*	*			

친밀성도 전반적으로 발달수준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 제일 낮았으며 대학교 1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들은 앞서 본 주체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친밀성에서도 발달수준이 낮음을 보여 준다.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대학 2년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체감 유예'의 분석

정체감 유예의 발달수준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5와 같다. 이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 표 26과 같다.

표 25. 유예의 발달수준별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 1	743	28.35	5.57	.20
중 2	699	31.34	5.07	.19
고 1	667	32.51	4.63	.18
고 2	705	32.65	5.36	.20
대 1	772	34.56	4.76	.17
대 2	676	31.10	5.57	.22
전 체	4262	31.73	5.53	.08

* 유예의 평균득점이 높을 수록 유예가 낮음.

표 26. 유예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df	SS	MS	F	P
집단간	5	15224.91	3044.98	113.48	.00
집단내	4257	106307.55	26.83		
전 체	4262	121532.46			

표 26에서 보듯이 정체감 유예의 발달수준별 차이는 F=113.98,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발달수준에 따라 자아정체감 유예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발달수준별 사후개별비교

평균	집단	중 1	대 2	중 2	고 1	고 2	대 1
28.35	중 1						
31.10	대 2	*					
31.34	중 2	*					
32.51	고 1	*	*	*			
32.65	고 2	*	*	*			
34.56	대 1	*	*	*	*	*	

정체감 유예에서도 전반적으로 발달수준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 제일 높았으며 대학교 1학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1학년생들은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대학2학년생들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의 발달에 비해 정체감의 발달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정체감 혼미'의 분석

정체감 혼미의 발달수준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8과 같다. 이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 표 29와 같다.

표 28. 혼미의 발달수준별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 1	743	11.50	3.47	.12
중 2	699	11.97	3.68	.14
고 1	667	13.21	3.54	.14
고 2	705	13.27	3.90	.15
대 1	772	13.61	3.62	.13
대 2	676	13.37	3.72	.15
전 체	4262	12.80	3.74	.05

* 혼미의 평균득점이 높을 수록 혼미가 낮음

표 29. 정체감 혼미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df	SS	MS	F	P
집단간	5	2577.53	515.50	38.47	.00
집단내	4257	53077.9	13.39		
전 체	4262	55655.51			

표 29에서 보듯이 정체감 혼미의 발달수준별 차이는 F=38.47,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발달수준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혼미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정체감 혼미에서도 전반적으로 발달수준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 제일 높았으며 대학교 1학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체감 혼미에서는 연령에 따라 득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혼미가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0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생들은 중학생들과는 대조적으로 혼미가 적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0. 발달수준별 사후개별비교

평균	집단	중1	중2	고1	고2	대2	대1
11.50	중 1						
11.97	중 2						
13.21	고 1	*	*				
13.27	고 2	*	*				
13.37	대 2	*	*				
13.61	대 1	*	*				

논 의

자아정체감 발달의 전체모습을 보면 먼저 눈에 띄이는 것은 중학 1년과 2년생(만 14세전후)의 경우, 매우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매우 낮은 발달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중학교 학생들은 급격한 신체적 성장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정신적 의식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심한 개인차를 보이는 것은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개인에 따라 그 변화가 다양해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은 한국과 서독의 청소년의 정체감 발달을 비교한 서봉연(1988)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한국청소년의 정체감 발달경향의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비교적 높은 발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아정체감의 득점이 연령에 따라 계속 상승경향을 갖는다는 최근의 선행연구(예컨대, 김형태,1989; 송설희,1994)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 1년생들이 다른 연령층의 청소년들에 비해 비교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생이 오히려 낮아지는 도리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중학생과는 달리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부터 외부로 받는 정신적 압력이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비해 대학에 진학하면서 그동안 서둘러 정체감을 확립하려고 하였던 자신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위척도 가운데 '주체성'과 '미래확신성'척도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고교시절 초기에 미래에 대한 주관적인 자신감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게 나타나며 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현실의 자신의 모습에 고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자기수용성과 주도성 및 친밀성은 대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학생으로서의 자각이 한편으로서는 자신의 확고한 인생을 탐색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정체감 유예와 정체감 혼미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적어져 가고 있는 현상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이 되면서 비로소 친밀감도 의의있게 증가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친밀감 역시 대학2학년이 되면서 현저하게 낮아짐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들은 자기존재 확인의 문제에 너무 골몰하기 때문에 성인초기의 발달과제인 친밀감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생일수록 정체감 유예와 혼미가 낮게 되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아의식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학2년생들의 정체감 유예가 중1년생를 제외한 어떠한 집단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보였으나 그러나 혼미에서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2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는 정체감 혼미 속에서도 자신의 성취를 위해 지속적인 관여를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이 정체감 획득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보다 높은 차원의 개인의 인격적 통합과 사회적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드릴 수가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아 정체감의 득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주체성과 자기수용성 및 미래확신성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높은 것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측면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부의 압력 즉, 대학입시라고 하는 한국교육의 특징의 한 단면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시기에 정체감을 높게 발달하는데 이는 외부에 의한 것으로 진정한 자신의 탐구와 스스로의 발달은 대학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참 고 문 헌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충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아청(1984). 한국과 일본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비교연구. **지도상담, 제10집**,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3-48.

박아청(1994). Marcia의 아이덴티티 지위면접을 활용한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일반**. 제13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1-11.

박아청(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II. 서울:중앙적성출판사.

박아청(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의 개발을 위한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표게재예정).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에 관한 심리학적 일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봉연(1979). 한국과 서독 청소년의 Identity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연구**, 2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14-138.

서봉연(1988). 자아정체감의 정립과정. 이춘재(편). **청년심리학(pp.101-136)**. 서울:중앙적성출판사.

송설희(1994).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韓國心理學會誌 : 發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1996. Vol.9, No.2, 68-78.

A Study on Developmental Aspects of the Ego-Identity in Korean Adolescents

Park, Ah-Chung

Department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the ego-identity scale in Korean adolescents . The subjects consisted of 1,442 middle school students, 1,372 high school stdudents and 1,448 college students in four citys including Seoul. The instruement administered for this study was Korean Ego-Identity Scale by researcher. The data were analyzed by ANOVA using SPS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adolescents's ego-identity scale between the three age groups($p<.001$).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ight sub-scales of ego-identity($p<.001$). Third, the three sub-scales such as 'Initiativeness', Self-receptiveness and Confirmativeness for future were checked as the highest scale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significantly.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in Korean culture, the development of ego-identity of adolescents is influenced by their age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al, such as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on the future.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ajority of korean adolescents, in college students especially, seem to be in high level of the ego-identity.